

#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공간적 상호작용

## The Spatial Interactions in the Swiss-German-French border region

김부성(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kimboo@korea.ac.kr)

국가간의 경계는 오랫동안 정치 및 문화지리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중의 하나였다. 지리학자들은 국경을 문화경관상의 물질적 요소로 간주하였고 권력과 주권을 분할하는 선으로 파악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계(borders and boundaries)는 사회과학과 문화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었으며 경계연구가들은 경계가 고정적인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경계의 가변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즉 경계와 접경지역은 점차 모든 물질적·상징적·권력적 속성이 혼합되어지는 모호하고 잡종적인 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역동적·문화적 과정내지 담론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경계연구가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서 동·서가 타자라는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세계화·환경문제 등 국경을 초월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경계를 둘러싼 영토 및 인종분쟁이 끊임없는 국가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계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세계적인 재정 및 교역의 성장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수반되는 세계화는 탈경계화(debordering)를 촉진시켜 왔는데 경계와 관련지어 다음 세가지현상의 증가를 가져왔다. 첫째 월경적 관계(cross-border relation) 내지 국제화 둘째 개방경계적 관계(open-border relation) 내지 자유화 셋째 초국경적 관계(trans-border relation) 내지 경계로부터의 해방이 그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는 점차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현상인지 경계가 재조정되는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예는 소련붕괴이후 수많은 독립국가의 탄생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서부유럽에서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는 결코 아니고 카탈로니아, 스코틀랜드처럼 국가간의 분쟁대신 국내분쟁이 새로이 등장하는 곳도 있다. 즉 세계화시대에도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과거에는 국경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점차 세금, 학군, 복지, 치안, 각종 개발계획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적 정체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국내 행정경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경계관리는 안정적인 월경관계에 공헌한다. 과거 경계연구가들은 자연론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주로 경계가 설정되기까지의 과정만 중시하고 그 이후는 소홀히 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경계를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문화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계와 접경지역의 공동관리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체성형성 등에 촉매제 역

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경계 및 접경지역에서의 상호작용의 변화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더 큰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변화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화해무드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방치되었던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평화벨트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1648년 30년 전쟁 종료 이후 300년 넘게 유지되어온 주권국가 중심의 베스트팔렌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유럽통합의 심화에 따라 유럽에서 접경지역은 종래 주변부 위치에서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월경협력과 지역통합의 시도는 유러리전(Euroregion)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일반적 의미와 잠재력을 검토하고 월경협력의 유형을 고찰한 다음 유럽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월경협력의 사례가 되고 있는 라인강 상류를 중심으로 하는 유러리전인 Regio TriRhenaI( 라인강 상류지역으로 스위스 도시 바젤을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대)에서의 월경적 상호협력의 발달과정과 지역정체성 형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월경적 협력관계도 결국은 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 상호협력관계를 Ullman이 제시한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원리를 통해 해석해 보았다.